

선력 63 / 제주 지방선거 브리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당·이름 가나다 순>

문대림 “4050세대 버팀목 정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4050세대를 지원을 통해 이 재명 정부의 기본사회를 제주에서 가장 먼저,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의 부모 간병보험료 지원, 주택 구입 시 모기지 이자 연 120만원 지원 등 주거 버팀목 프로젝트, 직업훈련과 일자리 매칭 집중 지원하는 여성 일자리 힘내라 프로젝트, 국가검진 사각지대 보완하는 정밀검진 지원을 담은 중장년 건강 버팀목 지원 등 '4050 버팀목·힘내라 5대 정책'을 제시하고, 다섯 가지 사



다리로 40-50대를 든든히 받쳐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문 의원은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세계 암 예방의 날'을 맞아 '꿈의 암치료'로 불리는 중입자 치료센터를 국립 공공 인프라로 제주에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위성곤 “교사노조 정책제안 적극 이행”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교사노동조합의 정책제안을 전달받고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들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전경찰관 제도 확대 >중·고등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버스 노선 및 배차 조정 >수학여행 안전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야간 순찰 협력 >공공 수영장 활용 바꾸어 방식의 생존수영 교육 지원 등 4가지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한 학교 안전경찰관 제도 확대 만이 아니라 교육당국과 협력 강화를 통한 상황별 맞춤형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해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영석기자

전농로, 벚꽃길 축제로 물든다

오는 27~29일 '왕벚꽃 축제' 행사기간 차 없는 거리 운영 공연·퍼레이드 등 볼거리 다채

주무대에서 삼도1동 품물팀의 길트기를 시작으로 주민과 방문객이 한데 어우러져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개막식이 열린다. 캘리그라피, 예피소드 댄스팀, 라인댄스, 초청가수 공연 등 제주의 봄을 알리는 흥겨운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펼쳐질 예정이다.

28-29일에는 혼디밴드, 댄스팀, 예술단공연, 패션쇼, K점핑, 초청가수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마련되며 축제 열기를 더하는 락페스티벌도 진행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해병대군악대와 사우스카니발 거리 퍼레이드, 버스킹 공연을 비롯해 벚꽃돌이·벚꽃송이 인형 포토존, 하트 무늬 모양 이동식 포토존 코너도 운영해 축제장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한다.

축제 기간 전농로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축제 첫째 날인 27일 오후 7시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제주시가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 2차 모집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난 1차 선정 이후 남은 잔액 939만원 범위에서 이뤄진다. 선정된 기업은 시설·장비 등 기업의 자본형성에 필요한 총경비의 최대 70%를 지원받는다. 자부담은 30% 이상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으로 최초 지정(인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법인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한 기업이다.

지원 신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백금탁기자

‘주차난 해소’ 공약 주목... 해법 다양

제주도지사·도의원선거 ‘주차난 해결’ 최대 현안 부각 대규모 지하주차장 조성·AI 시대 맞춤형 공유시스템 제시

6·3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마다 대표적 생활민원인 주차난 해결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많은 예비후보들이 주차난 해법을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반증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제주지역 공영주차장은 총 1441곳으로 4만584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만 유료 공영주차장은 텅 비어있는 반면, 바로 옆 이면도로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넘쳐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6만2764대, 주차장은 32만5864면으로 주차장 확

보율이 124%에 달한다. 하지만 주차 여건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3.4점에 불과해 매일 주차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은 “주차난 해소가 삶의 질”이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도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주차난이 심각한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일대지구와 도남동의 경우 후보마다 주차장 확보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연동갑 국민의힘 강경문 예비후보는 신제주로터리 지하에 1500면 규모의 지하 공영주차장 신설을 제시했고 일도2동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예비후보는 3층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6~7층으로 증축하는 방안과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포켓 주차장 조성 등을 제시했다. 오라동 더불어민주당 강정범 예비후보는 주차를 기본권으로 보면서 주차타워 신설방안을 제시했고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현길자 예비후보는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과 단계적 공영주차장 확충, 기존 공영주차장 복층화 등을 내세웠다.

도지사 후보들도 민생이라는 이유로 주차난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지사 후보들은 주차장 신설보다는 시스템 개혁에 방점이 찍혀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주차 공유 시스템 등을 통해 만성 주차난을 없애겠다고 약속했고 진보당 김명호 후보는 무상버스 시대를 통한 주차난 해소를 주장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송악산 봄기운 만끽... 안전한 봄날씨를 보인 22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탐방에 나서고 있다. 강희만기자

모슬포항 어업인 쉼터·수산물직매장 정비

서귀포시는 모슬포항을 이용하는 어업인과 관광객의 복지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투입해 '모슬포항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모슬포항 어업인 쉼터 증축 공사, 모슬포항 여객터미널 수산물직매장 정비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어업인 쉼터는 어선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과 휴식을 지원하

기 위한 공간으로 지난해 내부 리모델링에 이어 올해는 2억원을 들여 2층으로 증축한다.

여객터미널 수산물직매장은 가파도와 마라도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역의 수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공간이다. 올해 3000만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내부 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백금탁기자

Advertisement for 'Dain Industry' (다인산업) featuring 'Dain Gull' (다인 굴고리) for drying and processing. It includes a diagram of the product, a list of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pany.

Advertisement for 'Dain Industry' (다인산업) featuring 'Dain Gull' (다인 굴고리) for drying and processing. It includes a list of products,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pany.